

# 불타버린 '코리안 드림'

## 여수 출입국관리소 화재 목격자 "중국인 수용자 CCTV 가린 뒤 연기"

새벽잠에 빠져있던 불법체류자들의 '코리안 드림'(Korean Dream)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성난 화마(火魔)는 소방시설 미비와 관리 소홀을 틈타 모든 것을 일순간에 짓밟아 버렸다.

▷생지옥 현장=11일 새벽 3시55분,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3층 외국인 수용시설 304호실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다. 당시 304호에는 불법체류자 및입국 등의 혐의로 붙잡혀 온 중국인 8명이 수용돼 있었다.

불은 바다 장관과 사물함 등을 태우고 빠르게 번졌다. 불이 난 것을 목격한 당직 직원이 화재경보기 버튼을 누르고, 급히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불이 난 곳이 보호실 깊숙한 곳이라서 여의치 않았다.

직원들은 우선 통로와 가까운 곳에 있는 301호(8명 수용)부터 차레로 문을 개방해 수용자를 대피시켰다. 하지만 304~306호의 문은 열지 못했고, 안에 있던 수용자들은 '생지옥'을 경험했다. 수용자들은 매스꺼운 연기가 물러들자, 보호실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서 모포에 물을 묻힌 뒤 코를 감싸고 었드렸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구조 작업=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방독면을 쓰고 보호실로 진입했다. 당직 직원들에게 열쇠를 건네받아 철창 문을 연 뒤, 정신을 잃은 수용자를 하나 둘 밖으로 옮겼다. 일부 대원들은 절단기로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칠룩 같은 어둠 속에서 펼쳐진 구조 작업의 성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목숨을 잃은 사람은 대부분 연기

에 질식사 숨졌으며, 중국인이 8명 우즈베키스탄인이 1명이었다. 불은 1시간여 만인 이날 새벽 5시경 완전히 진화됐다.

▷화재 원인=경찰은 일단 방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밤부터 발화지점인 304호실에서 수용자인 진명지(39·중국·사망) 씨가 화장지에 물을 묻혀 CCTV를 가린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진씨는 3~4차례에 걸쳐 같은 행동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확인 결과, 불이 나기 5~8분 전, 진씨가 또다시 같은 행동을 벌여 직원들이 막았다"면서 "이후 CCTV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불을 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시 직원과 수용자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 사상자 명단

- ◇사망자(9명) ▲진명지(39·중국·여수 전남병원) ▲에르킨(47·우즈베키스탄) ▲리 타이푸(43·중국·여수 성심병원) ▲짱쯔궈(50·중국) ▲쑤판중(40·중국) ▲리사오준(46·중국) ▲양보지아(32·중국·여천 전남병원)

- ▲진청난(51·중국) ▲편신시(35·중국) ◇부상자(18명)

- ▲리구호우(43·중국·여수성심병원) ▲루보(40·중국) ▲왕젠가이(38·중국) ▲궈칭홍(36·중국) ▲리우시우통(37·중국·여수 전남병원) ▲피아오저우(32·중국) ▲린빈(38·중국) ▲황하이보(38·중국·조선대병원) ▲장광원(48·중국) ▲유지안청(35·중국) ▲켄쉬엔가오(55·중국) ▲페르난도(25·스리랑카) ▲쉬레이(32·중국·여수제일병원) ▲짜오신잉(32·중국) ▲시젠구이(43·중국) ▲양종야오(46·중국·전남대병원) ▲조우아핑(42·중국·전남대병원) ▲왕수웨라이(30·중국)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수용 중 화재로 부상을 입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11일 여수 제일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화재 참사 이모저모

#### 환자들 언론 접촉 차단...의문 증폭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준공된 지 2년밖에 안된 건물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 사무소 측은 입원 치료 중인 수용자들이 치료 중인 병원에 보호요원들을 파견, 안심시키면서 도주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

직원들은 특히 환자들이 언론과 접촉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했는데, 이에 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혹 보호 시설 내 문제점과 비인권 상황이 폭로되는 것을 우려해 조치가 아니겠느냐"고 분석.

○~사건 진상 파악에 나선 법무부는 외교차찰을 우려한 듯 철저한 규명을 약속하면서도 극히 신중한 태도를 일관.

이날 오후 사건 브리핑을 한 법무부 강명덕 출입국관리국장은 "사망자가 외국인인 만큼 자칫 분쟁이 일 수 있다"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화재원인 등에 관해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 여수에 도착한 김성호 법무부 장관도 "질문은 받지 않겠다"며 기자들의 질의에 일일 무응답.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 장소를 놓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측과 시민단체가 이견을 보이며 갈등.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여수 성심병원에 희생자 9명의 합동분향소를 차렸는데, 민주노동당·민주노동·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민 임시대책위'가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이라며 비난한 것.

대책위 관계자는 "합동분향소는 사고가 난 출입국관리사무소 청사에 차리는 것이 예의에 맞다"고 주장한 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병원 규모도 크고 안전된 시설이 많은 성심병원이 적합하다"는 입장.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 인명 피해 왜 컸나?

#### 극장 신고에 초기 대응 실패 경보 먹통...스프링클러 없어

여수 참사는 직원들의 안이한 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불이 발생한 시각은 새벽 3시55분,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새벽 4시44분이었다. 당직을 서고 있던 직원들이 즉각 신고를 하는 대신 비치된 소화기 3개로 자체 진화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원들은 시커멓게 뿜어져 나오는 유독 가스에 밀려 불을 끄지 못했다. 소방대원들이 신고를 받은 지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을 감안하면, 빠른 신고가 아쉬웠던 대목이다.

도주를 막기 위해 쇠파설로 만든 보호실 문을 늦게 개방한 것도 대형 참사를 유발했다. 사고가 발생한 3층에는 모두 6개의 보호실(301~306호)이 있었지만, 직원들은 301~303호 3곳만 문을 열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열쇠를 3

층에서 찾지 못해 2층으로 다시 내려가 가지고 올라온 것이다. 하지만 거센 불길로 접근이 어려워 나머지 304~306호 수용자들은 소방대원들이 올 때까지 잠금 문을 두드리며 유독 가스를 마셨고, 피해도 이곳에서 집중됐다.

열악한 소방시설도 문제였다. 생존한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당시 화재 경보음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11월7일 소방시설 관리업체의 소방진단에선 관련 시설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나왔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6천624㎡) 규모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소방법에는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나원침 (7052) 김장동



평생선도저의 중생특권을 누리는 3.6.36 최대대행! (홍익인간·4대영광·4대희망) 수련선도사 피오레 062-367-9000

### 사망한 진청난씨 가족 오열

#### 체불임금 신고해 간헐다 '날벼락'

"빠달라고 할 때는 아무 반응도 없더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우리 오빠 어떡해..."

갑작스런 오빠의 죽음 소식을 들은 동생 진명지(여·45) 씨 등 동생 2명은 허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11일 오후 4시경, 출입국관리소 2층 심사과에서 진씨는 관리소 직원에게 "오빠를 살려내라"며 10여분 동안 거세게 항의했다.

진씨의 오빠는 306호에 수용됐던 진청난(51)씨. 고향은 중국 지린성(吉林省)에 있는 현(縣)인 '용지'(永吉). 가족은 부모님 외에 모두 7남매가 있다. 이 중 6명은 "어려운 형편에 보탬이 되겠다"며 지난 2005년 8월 낯선 한국 땅으로 건너왔다.

숨진 진씨만 홀로 여수의 한 양식장에 취업했다. 진씨는 빠 빠지게 1년6개월 동안 일했으나 월급 1천만원 가량을 받지 못했다 고 한다. 노동청에 신고한 뒤에야 340여 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 뒤로는 가족했다. 지

난 1월19일, 진씨는 불법 체류 혐의로 출입국 관리소에 소환됐다. 허기가 나지 않은 양식장에서 서류를 가져다 꾸며 불법으로 입국·취업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숨진 진씨는 강제출국 날짜만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전에 있던 양식장에서 약 700만원의 월급을 못 받은 터라, 체납된 임금을 받을 때까지 머물러야 했다.

여동생은 수차례 출입국 관리소에 찾아와 "벌금이라도 낼 테니 오빠를 꺼내달라"며 통사정했다. 그러나 "서류를 조작해 불법으로 체류해 양식장에서 일한 사실을 부인하고, 연락도 안 돼 소재 파악이 힘든 등 죄질이 무거워 벌금처리는 안 된다"는 대답만 들었다.

'코리안 드림'을 찾아 한국에 온 한 중국인의 꿈은 물거품이 됐고, 낯선 이국 땅에 남은 형제자매는 서러움에 목이 잠겼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8세 초등학생 '체벌 사이트' 가입



○~역할을 정한 남녀가 합의 아래 나체 상태에서 회교나 채찍 등으로 서로 때리고 맞으며 성행위까지 하기도 하는 가학(加虐)·피학(被害)형 행위를 가리키는 인터넷상의 은어인 이른바 '체벌' 장면을 찍은 사진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와 카페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음란 반대 사이트 및 카페를 운영한 송모(35)씨 등 4명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A(8)양 등 초·중등생 7명에 대해서는 형사 미성년자(만14세 미만)인 점을 감안, 훈방 조치.

○~이들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S 사이트 등을 관리하면서 1천200여 명으로부터 4천여만원의 받았으며, '체벌'에 쓰이는 도구도 판매 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체벌'이라는 단어로 이 같은 카페 280개가 검색됐는데, 이들 가운데 20%는 미성년자가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 /연합뉴스

달리면 행복핀번호 3월 11일 정남진연세 함께 달린시도!! 제2회 정남진 장흥 전국마라톤대회. Includes details on date, location, registration, and contact information.